

순천만정원 · 습지, 지난해 가장 인기있는 관광지 선정

지난해 618만명 입장...순수 관광지 입장객 수 '1위'



순천만습지의 여름 갈대밭(순천시 제공)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가 지난해 국민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관광지로 조사됐다. 15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전국 주요 관광지점의 방문객을 조사한 결과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618만명이 다

너갔다. 이 숫자는 놀이시설을 제외한 순수 관광 지로는 전국 최고 기록이다. 순천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국가정원,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선암사, 삼보사찰

중 하나인 송광사, 조선시대 조상들의 삶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등 한 번 오면 또 오고 싶은 생태문화관광 1번지로 명성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해 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순천 방문의례를 선포하고 가족단위 휴식과 학습을 연계하는 복합형 관광상품, 야시장과 국가정원 야간개장 등 야간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객은 1300만명, 관광 소비 매출은 4332억원을 기록했다.

또 2019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 1위', '생태문화관광도시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환경 변화에 대비해 순천이 보유한 자연환경을 활용해 힐링위주의 관광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개별여행객 모객 모바일 이벤트, 대한민국 안전여행 이벤트, 관광방역 지침이 운영, 관광종사자 안전교육 등으로 안전한 여행을 위한 관광객 수용태세를 갖춰 나가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가 2019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순수관광지로 선정돼 영광"이라며 "앞으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최고 관광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1만5천톤급 대형 카페리, 전남 고흥 녹동~제주 성산포항 운항

오늘부터 하루 1회 왕복
편도 3시간30분 소요

여객 628명과 차량 16대를 동시에 수송할 수 있는 카페리 여객선이 새로 개설된 전남 고흥군 녹동 신항과 제주 성산포항로에서 운항을 시작한다. 15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새로 건조된 카페리여객선인 '선라이즈제주호'가 16일부터 고흥 녹동 신항~제주 성산포항까지 운항을 개시한다. '선라이즈제주호'는 해양수산부의 고가 여객선 건조 지원금융 프로그램인 '연안 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조선소에서 건조된 1만5000톤급 카페리

여객선이다. 녹동~성산포 항로를 하루 1회 왕복 운항하며, 편도 3시간 30분이 소요된다. 운항시각은 오전 8시30분 제주 성산포항을 출발해 낮 12시 녹동 신항에 도착하고 오후 5시 녹동 신항을 떠나 오후 8시30분 성산포항에 도착한다. 그동안 녹동 신항에서는 카페리선 '아리온제주호'가 제주항까지 운항 중이었으며, 이번에 '선라이즈제주호'가 성산포항으로 추가 취항하게 됐다. 특히 제주항으로 편중된 물류를 성산포항 항로 개설로 다양한 접근로를 제공하고, 신조선(新造船)을 투입해 이용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전남 고흥 신항과 제주 성산포항을 운항하게 될 신조선박 선라이즈제주호.(여수해수청 제공)

조희승 여수해수청장은 "녹동~성산포항로가 개설되고 신조 여객선이 취항함에 따라 해양안전 확보는 물론 고흥과 제주 지역의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태영 기자



광주 서구의회, 전례없던 '4당 체제'

민주 · 진보 · 민생 · 무소속
이례적 후반기 원구성 마무리
시민단체 "소신·연대" 환영

광주 서구의회가 민주당, 진보당, 민생당,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면서 전례가 없던 '4당 체제' 의장단이 꾸려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거에서 김옥수 민생당 의원이 민장일치로 예정된 원장으로 선출됐다.

서구의회 의장은 김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의장은 박영숙 민주당 의원이 당선됐고 상임위원로는 기획총무위원장에 김태진 민주당 의원, 의회운영위원장에 김수영 무소속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김옥수 민생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현재 광주에서 서구의회를 제외한 광주시의회, 동구의회, 남구의회, 북구의회, 광산구의회 후반기 의장단은 단 한 석도 빼놓지 않고 모두 민주당이 독식했다. 서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일각에서는 전반기 의회에서 의장단을 독식한 민주당의 전횡을 동료 의원들이 적극 비판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오며 이례적인 원구성이 꾸려진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는 방증이라는 평가다.

서구의회는 의원 13명 중 민주당 9명, 민생당 1명, 진보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민주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일 진행된 서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김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당내 경선으로 당선된 오희교 의원을 누르고 의장으로 선출됐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의장단 선거에 앞서 당내 경선을 통해 의장과 부의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까지 내정했다. 만약 본투표에서 '이름 어길 시 당규의 규정에 따라 징계에 처할 수 있음'이라는 서약서까지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의장단 선거에서는 이번이 속출했다. 내정자인 오희교 의원이 아닌 김태영 의원이 당선됐고 상임위 역시 민주당이 아닌 민생당과 진보당, 무소속 의원이 골고루 선출된 것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를 "비열한 야합"이라며 '응분의 조치'와 함께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며 김태영 의원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반해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은 달랐다. 참여자치21은 이번 원구성을 두고 "자유와 소신에 입각한 화합과 연대의 번란"이라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오주섭 사무처장은 "민주당 일당 독재하에서 당의 징계를 무릅쓰고 소신과 연대를 보여준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의지를 갖고 지방의원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준 소수 야당과 무소속의원들께도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회의 올바른 모습이라며 추켜세웠다. 한 서구의원은 "민주당이 의장, 부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면서 소수당을 철저히 배제했다"며 "이번 투표는 의회 전반기를 함께 지낸 의원들이 동료 의원의 역량과 자질을 평가해 소신 투표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옥수 서구의원은 "전국에서 다수당이나 거대 양당이 아닌 무소속까지 포함한 4당 체제가 구성된 것은 서구의회가 처음"이라며 "일하는 의회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승호 기자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노사민정이 손을 잡고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냅시다.



- 기업은 고용유지에 힘쓰고
- 근로자는 생산성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 정부는 일자리 안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불안 · 노사갈등 노동문제로 애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하시면 직접 방문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를 해드립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